

# InOrganic to Organic—

무에서 유기로

유수종 개인전

서울시립  
북서울미술관 2025.10.01-  
2025.10.09

**무에서  
유기로**



# 여는말

**생명 없는 무기(無機)에 숨결을 불어넣다.**

움직임 없던 무기물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바뀌어 가고,  
단조로운 외형에 다채로운 색채가 더해지며,  
각 작품별로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게 된다.

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들,  
익숙함에 가려진 무기물과 인공물들.

그 평범한 일상들을 10장의 사진 안에 담아,  
인공지능의 능력을 빌려  
각 사진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빚어냈습니다.

거창한 해설은 필요 없으니,  
그저 천천히, 깊이 음미하며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올립니다.

**작가 유수종 올림.**

# 축사



## 이동진

평론가, 작가

“현대미술과 대중예술의 성공적인 줄타기.  
깔끔한 디테일이 여기서도 느껴지는  
최고의 전시회 경험이 될 것이다.”

## 조승연

작가

“글도 입도 아닌 시각적 매체로  
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가이다.  
그저 보기만 해도 경이로울 것이다.”



## 정유정

소설가

“음지에서 양지를 해메이는 모습이  
이상하고 아름다운 한 군상과 같아 놀랍다.  
그의 첫 전시는 어떤 느낌일까. 정말 기대된다.”





하늘에서 싱크홀이 생기면  
어떤 느낌이 드려나.

ପ୍ରୋକ୍ରିମେ ନାହିଁ

ସାଜି ମୌ ଗାନ୍ଧୀ, 1024x1792





저 멀리 있던 옛 추억을  
지금 그곳에 붙여넣고 싶어.

외출 D+365

사진 맵 기준화, 2048x2048



2020. 0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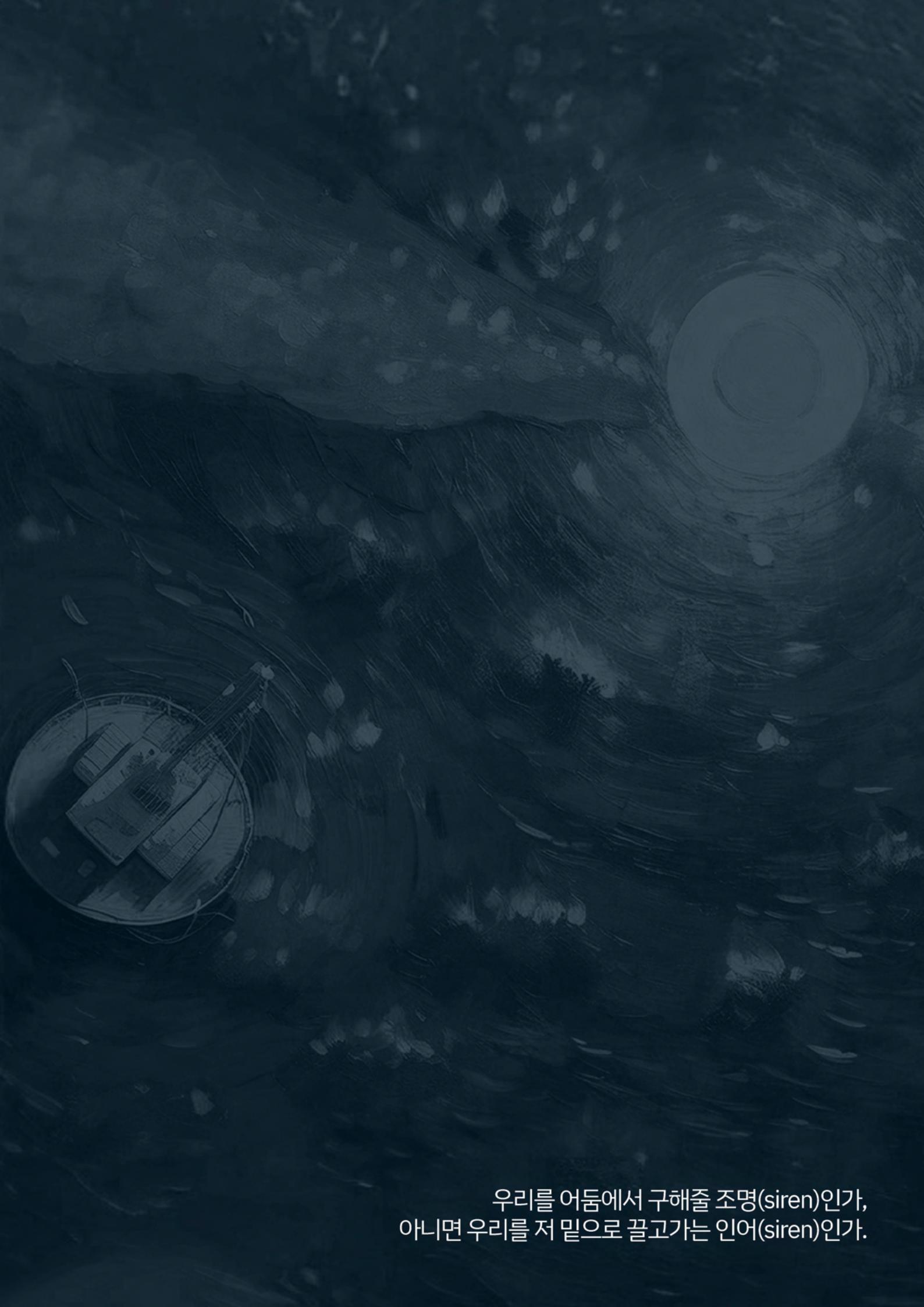
그리워하다

사진 및 그래픽 콜라주, 2048×204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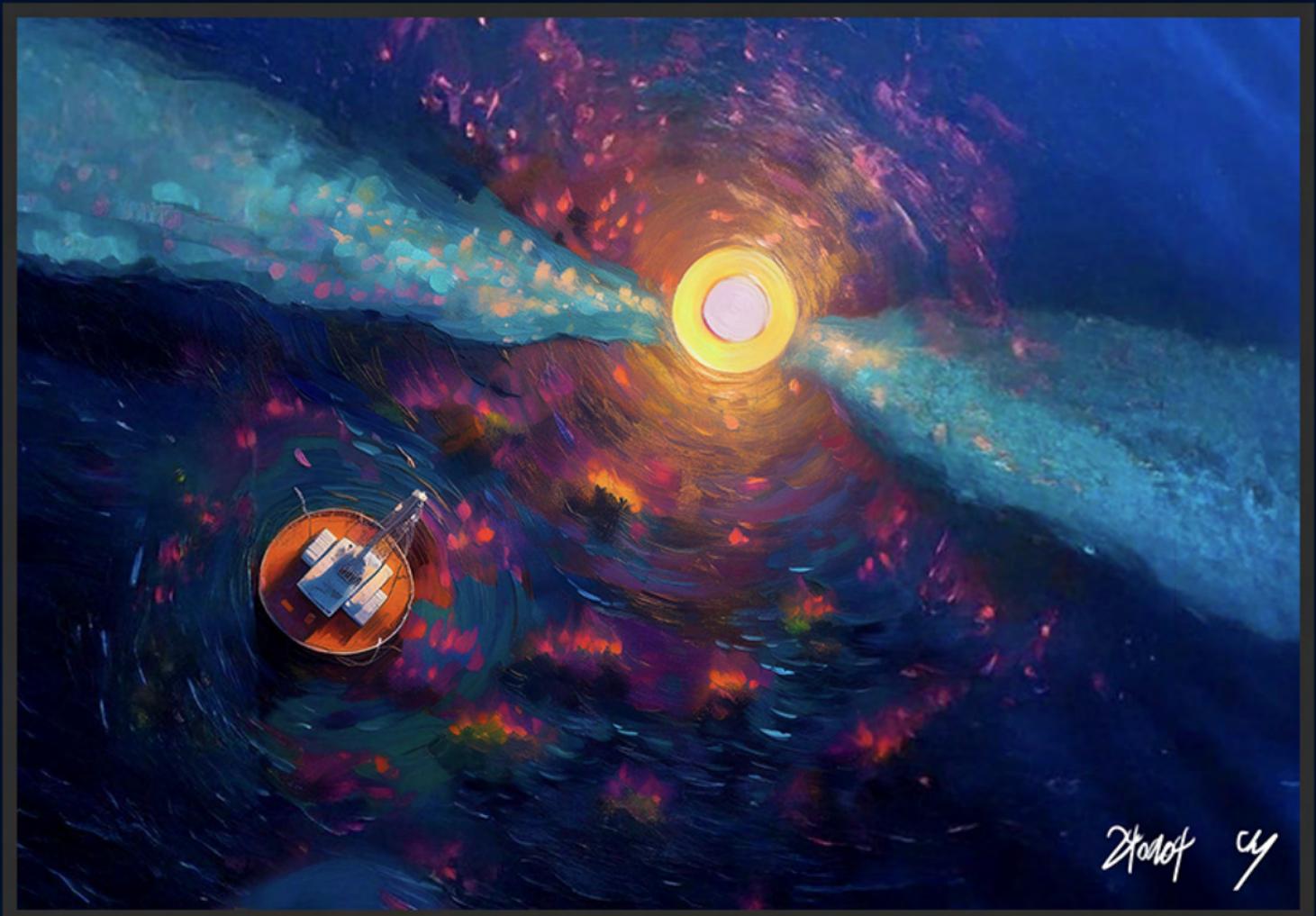
인형뽑기

사진 및 그래픽, 2048×2048



A dark, atmospheric illustration depicting a small boat on a sea of turbulent, swirling waves. In the upper right, a large, luminous full moon hangs over the horizon. The overall mood is somber and mysterious.

우리를 어둠에서 구해줄 조명(siren)인가,  
아니면 우리를 저 밑으로 끌고가는 인어(siren)인가.



사이렌 (Siren)

사진 및 그래픽, 2268×1593



공간이동

사진 및 그래픽, 2268×1850



더 이상 안에서 울고 싶지 않아.  
이제 고치에서 나올 때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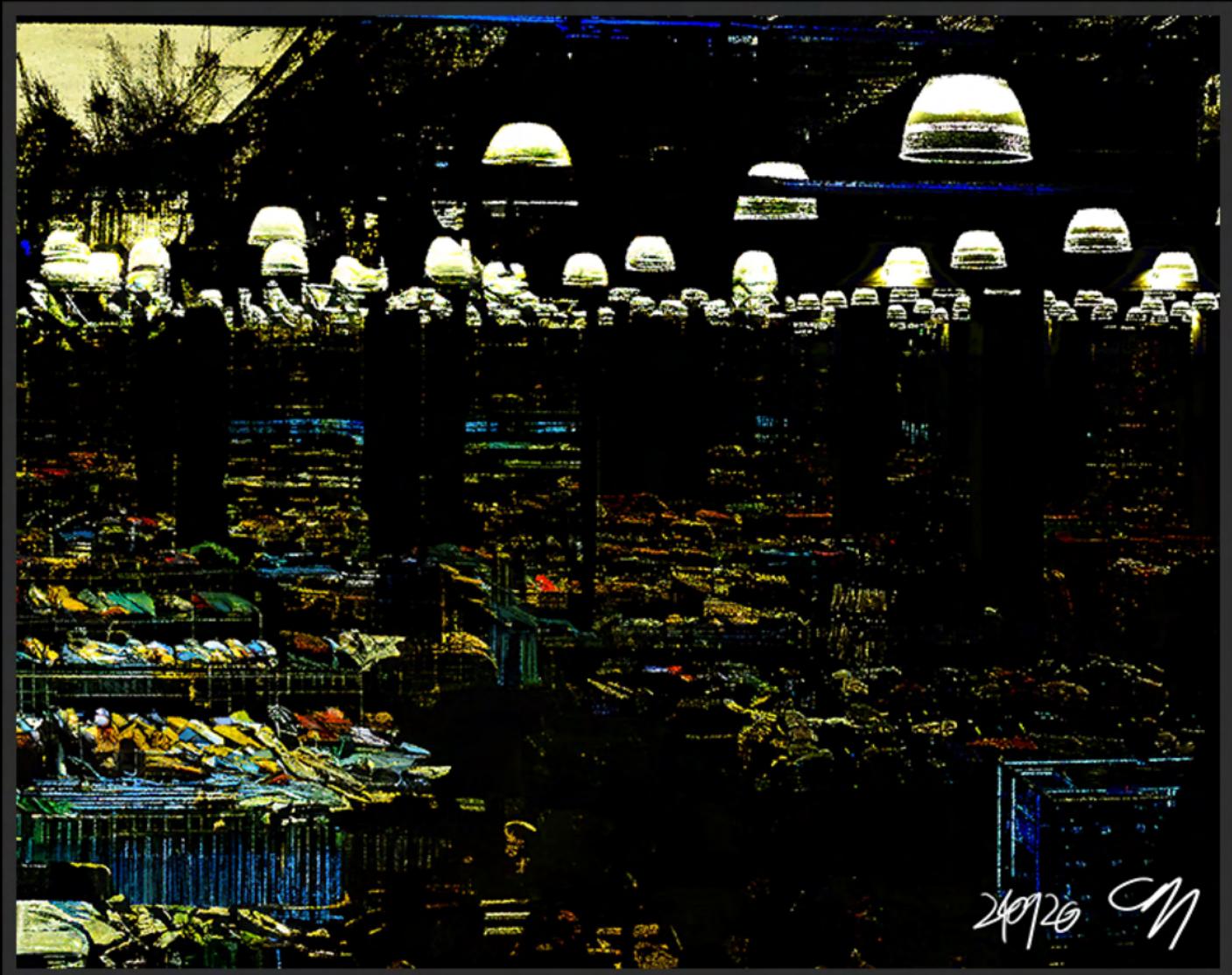
나때는 말아야...

사진 및 그래픽, 2304×1792



하얀나비

사진 및 그래픽, 2268×4032



도심 속에서 피어난 해파리

사진 및 그래픽, 2149×1712



NPC-1

사진 및 그래픽, 2422×2268

240926 CM



해피엔딩은 연기하는게 아니야.  
겉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와야지.  
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NPC1로만 기억될지도 몰라.

**무에서**

**유기로**



유수종



1999 - 크리스마스 한주 전, 세상에서 내려왔다.

2015 - 상업예술 공부를 위해 집을 옮겼다.

2018 - 그렇게 디자인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됬다.

2023 - 반복되는 우울한 루프 속, 희망의 끈을 찾아 폴리텍을 들어가다.

2025 - 첫 개인표전, <무에서 유기로>를 개최하다.





2025.10.01-  
2025.10.09

